

# 현안과 과제

- 최근 체감경기의 특징과 시사점
- 체감 경제성장률은 -1.1%로 실제 경제성장률보다 3.8%p 낮아

### □ 최근 체감경기의 특징과 시사점

#### ■ 개요

한국 경제는 현재 미약하기는 하지만 회복 국면에 위치하며, 소비자물가는 0%대로 낮은 수준이다. 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체감 물가상승률은 3%대에 달한다. 체감경기와 실제 경기의 괴리가 상당한 만큼, 그 배경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.

#### ■ 최근 체감경기의 특징

첫째,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후퇴한다고 느끼고 있다.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2.7%(2014년 4분기 기준)인 반면, 국민들은 오히려 1.1% 후퇴했다고 답해 3.8%p에 달하는 괴리가 존재한다. 둘째, 소득이 적을수록, 가계수지가 적자일수록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났다. 저소득가구 및 적자가구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-2.1%, -1.4%로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. 셋째, 순자산이 적고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경기 인식이 부정적이다. 순자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와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-1.6%, -1.4%로 평균치보다 낮다. 넷째, 연령이 높을수록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다. 40대 및 50대 이상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모두 1.5%로 평균치보다 낮다. 40대는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등의 의무지출이 많기 때문에, 50대 이상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. 다섯째,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경기 인식이 부정적이다. 자영업자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-2.0%로 임금근로자의 -1.0%보다 낮은데, 내수 부진으로 인한 이익 감소 및 폐업과 무관치 않다. 여섯째,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, 즉 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. 체감 경제성장률이 -1.1%로 후퇴하는 반면, 체감 물가상승률은 3.3%로 실제 물가상승률 0.8%(2015년 1월 기준)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. 일곱째, 미래 체감경기는 현재 체감경기보다 개선되기는 하나,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. 향후 1년간 체감 경제성장률은 -0.3%로 현재의 -1.1%보다 개선되고,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도 2.6%로 현재의 3.3%보다 안정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. 하지만 미래의 체감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머물러 있다.

#### ■ 시사점

체감경기가 실제 경기보다 훨씬 부정적인 만큼, 민간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체감 경기를 개선해야 한다. 첫째, 소득 증대는 물론 의미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. 둘째, 가계의 자산형성 및 부채 축소, 노후준비를 지원해야 한다. 셋째, 연령별, 종사상지위별,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. 마지막으로,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울 커뮤니케이션 대책이 필요하다.

## 1. 배경

-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와 실제 경기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, 그 배경을 살펴보고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
  - 현재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침체 국면으로 인식
    - 현재 경제성장률은 3% 내외로 미약한 회복 국면에 위치하며,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세 인상 효과를 제외할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<sup>1)</sup>
    - 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(-1.1%)이고 체감 물가상승률은 3%대에 달해 실제 경기와 상당한 괴리 존재
  - 체감경기와 실제 경기의 괴리 배경을 살펴보고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
    - 체감경기는 곧 소비심리이자 민간소비의 선행지수로 기능하기 때문에, 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 존재
  - 설문조사 개요 : 전국 성인 남녀 1,007명을 대상으로 성장, 물가, 고용, 소득, 지출 상태와 전망에 대한 설문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조사<sup>2)</sup>
    - 조사기간은 2015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며, 유선전화 설문으로 오차 범위는 95% 신뢰 수준에서 ±3.1%p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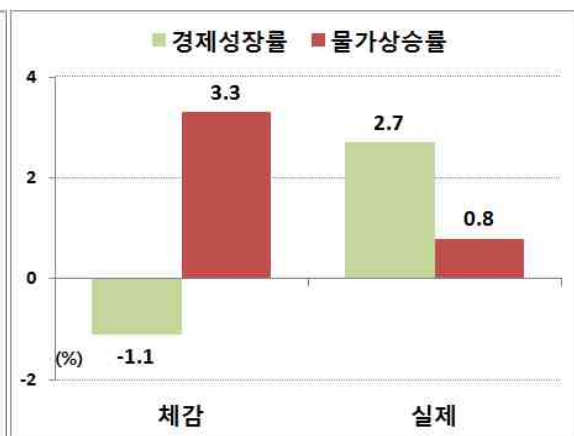
<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.

주 : 물가상승률은 분기 평균.

< 체감경기 및 실제 경기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한국은행.

1) 2015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.4%로, 담뱃세 인상 효과를 제외할 경우 -0.2% 수준. 1~3월 평균은 0.6%임.  
 2) 응답자 특성은 부록 참조.

## 2. 최근 체감경기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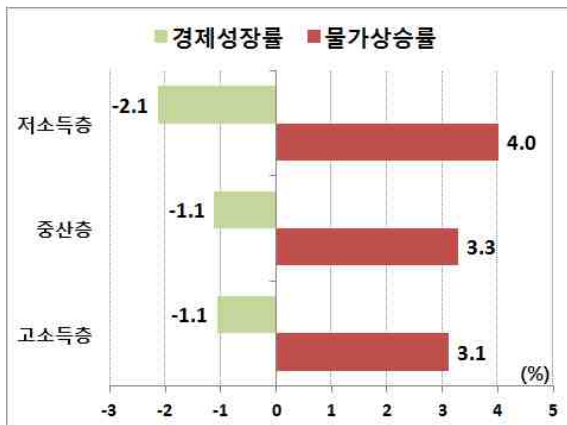
○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

-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2.7%(2014년 4분기 기준)인 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성장률은 -1.1%로 3.8%p에 달하는 괴리 존재
  - “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1년 전에 비해 2.7%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귀하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몇 % 성장하거나 후퇴한 것 같습니까?”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평균치<sup>3)</sup>는 -1.1%로 나타남

○ 소득이 적을수록, 가계수지가 적자일수록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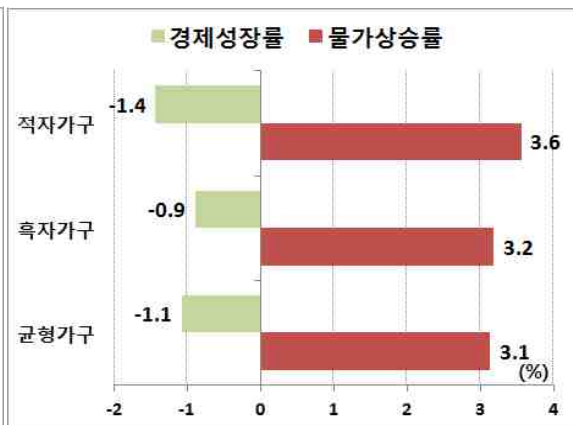
- 저소득가구와 적자가구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-2.1%, -1.4%로 평균치인 -1.1%보다 낮은 수준
  - 소득계층별 : 저소득가구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-2.1%로 중소득가구 -1.1%, 고소득가구 -1.1%보다 낮은 수준
  - 가계수지별 :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-1.4%로 흑자가구 -0.9%, 균형가구 -1.1%보다 낮은 수준
  - 소득뿐만 아니라 지출 부담 또한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

< 체감경기 : 소득수준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< 체감경기 : 가계수지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3) 1,007개 표본 중 이상치(outlier;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3배 이상 떨어져 있는 응답) 25개를 제외한 982개 표본의 평균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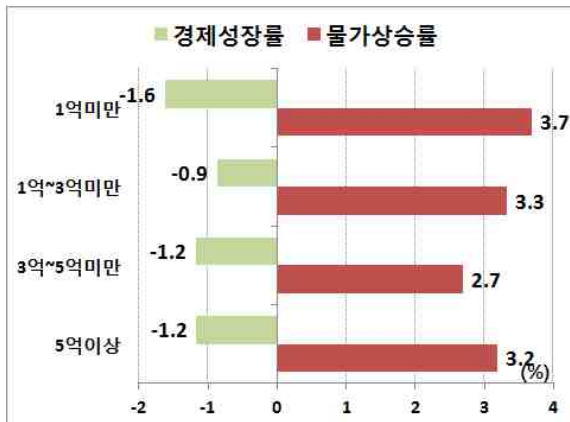
○ 순자산이 적고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경기 인식이 부정적

- 순자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와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-1.6%, -1.4%로 평균치보다 낮음
  - 순자산수준별 : 순자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-1.6%로 1억~3억원 미만 가구 -0.9%, 3억원 이상 가구 -1.2%보다 낮은 수준
  - 노후준비 정도별 :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-1.4%로 노후준비가 잘된 사람의 -0.6%보다 낮은 수준
-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또한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며, 연금, 금융자산, 부동산 등을 통한 노후준비 정도에 따라 경기 체감도가 달라짐을 의미
  - 순자산이 적고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, 가계의 내핍 경영이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됨

○ 연령이 높을수록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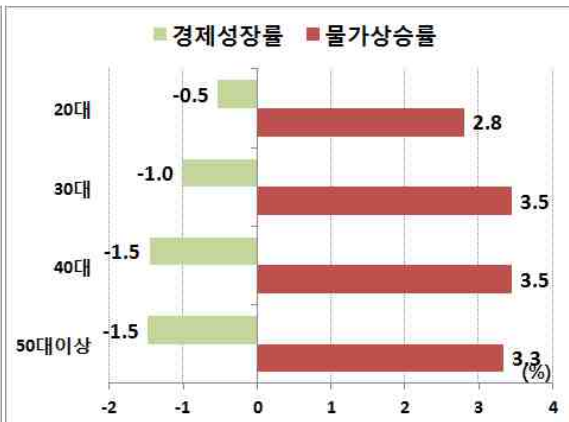
- 40대 및 50대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모두 -1.5%로, 20대의 -0.5%, 30대의 -1.0%보다 낮은 수준
- 40대는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등의 의무지출이 많기 때문에, 50대 이상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경기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
  - 40대의 의무지출 증가율은 3.3%로 전체 평균 2.3%를 상회하고, 50대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383만원으로 전체 평균 416만원을 하회

< 체감경기 : 순자산 수준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< 체감경기 : 연령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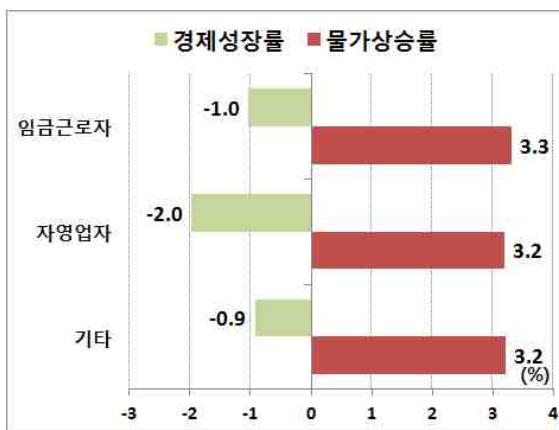
○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경기 인식이 부정적

- 자영업자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-2.0%로 임금근로자의 -1.0%보다 낮음
- 내수 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익 악화 및 점증하는 폐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  - 임금근로자의 체감 소득증가율은 0.5%인 반면 자영업자는 -3.1%로 상당한 격차 존재. 또한 자영업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은 408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423만원보다 낮은 수준
  - 2013년에 자영업자 66만 명이 퇴출하여 진입자 58만 명을 크게 상회<sup>4)</sup>. 영세 자영업자의 출혈경쟁으로 퇴출자가 증가하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

○ 서울지역의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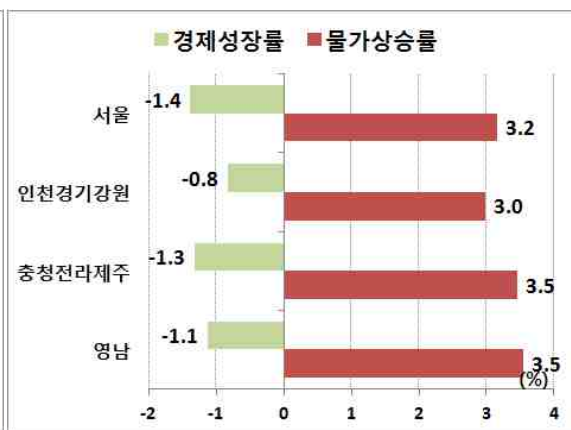
- 서울지역 및 충청전라제주지역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-1.4%, -1.3%로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
  - 반면 인천경기강원지역은 -0.8%, 영남지역은 -1.1%로 상대적으로 양호
- 서울지역은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체감실업률이 높기 때문에, 충청전라 지역은 소득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  - 서울지역의 월평균 세후소득은 491만원으로 전국 평균치 416만원보다 높지만, 체감실업률은 19.4%로 전국 평균치 14.1%를 크게 상회

< 체감경기 : 종사상지위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< 체감경기 : 지역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4) 현대경제연구원(2015), “자영업자 진입-퇴출 추계와 특징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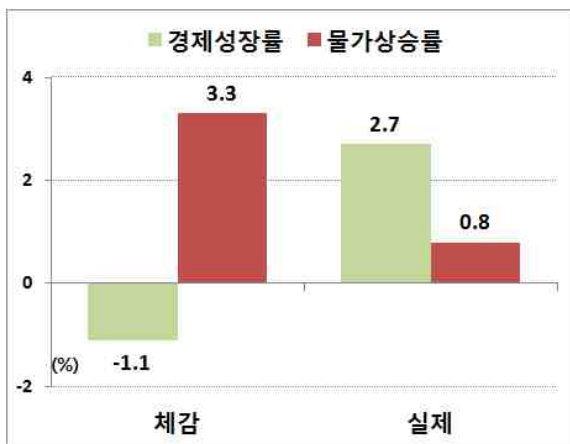
○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, 즉 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느끼고 있음

- 현재 한국 경제는 미약한 회복 국면에서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
  - 현재 경제성장률은 3% 내외로 미약한 회복 국면에 위치하며,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%대로 매우 낮은 수준 지속
- 반면 국민들은 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인식
  - 체감 경제성장률이 -1.1%로 후퇴하는 반면, 체감 물가상승률은 3.3%로 실제 물가상승률 0.8%(2015년 1월 기준)보다 매우 높은 수준

○ 미래 체감경기는 현재 체감경기보다 개선되기는 하나,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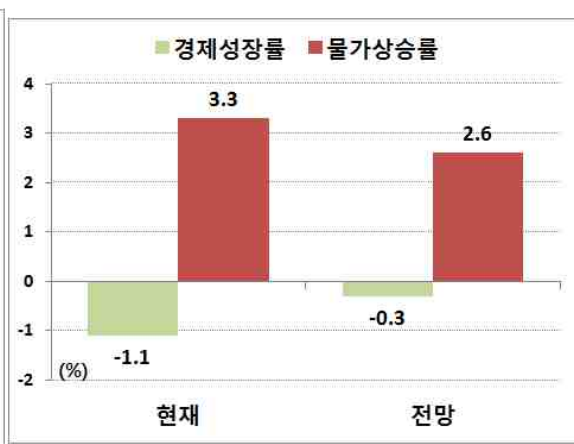
- 국민들은 향후 경제성장률은 소폭 개선되고 물가도 소폭 안정될 것으로 기대
  -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은 -0.3%로 현재 경제성장률 -1.1%보다 개선
  -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도 2.6%로 현재 물가상승률 3.3%보다 안정
- 하지만 미래의 체감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머물러 있음
  - 국민의 경제성장 및 물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,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

< 체감경기 및 실제 경기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< 체감경기 : 현재 및 전망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### 3. 시사점

- 체감경기가 실제 경기보다 훨씬 부정적인 만큼, 민간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소비여건 개선과 더불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대책 강구
  - 소득 증대는 물론 의무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강구
    - 특히 저소득층 및 50대 이상의 소득향상대책을 강구하고 세금 및 4대 공적보험,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대책을 강화
    -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, 근로장려세제(EITC) 강화, 실업급여 및 최저생계비 보장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
    - 또한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의무지출 증가율은 2.4%로 저소득층의 1.5%보다 높은 수준. 공교육 정상화 및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
  - 가계의 자산 형성 및 부채 축소, 노후준비 지원
    -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,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책보다 자산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
    -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며,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지속
    - 한편 퇴직연금을 포함한 개인연금 확대 및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
  - 연령별, 종사상지위별,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
    - 인구집단마다 체감경기 악화의 배경이 다른 만큼, 맞춤형 대책 시급
  -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할 커뮤니케이션 대책 강화
    -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%대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, 근원물가 상승률 및 기대 인플레이션이 2%대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3%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희박
  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, 즉 경기 위축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만큼,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해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

이준협 연구위원 (2072-6219, [sododuk1@hri.co.kr](mailto:sododuk1@hri.co.kr))



< 응답자 특성 >

응답자 특성		비중(%)	응답자 특성		비중(%)
전체	1007명	100	OECD 계층별	저소득층	5.7
성별	남성	51.3		중산층	69.0
	여성	48.7		고소득층	25.3
연령별	20대	23.1	자산 수준별	1억 미만	27.4
	30대	27.5		1억 ~ 3억 미만	38.3
	40대	25.6		3억 ~ 5억 미만	15.2
	50대 이상	23.7		5억 이상	19.0
지역별	서울	21.2	가계 수지별	적자가구	29.1
	인천경기강원	30.4		흑자가구	29.0
	충청전라제주	21.7		균형가구	41.8
	영남	26.7			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